

社會·文化的 變化에 따른 日帝時代 鐵道官舎의 空間變容過程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rocess of spatial transfiguration for
the Railway Official Residence based on the transition
of Social-culture

尹 在 雄 *
Yoon, Jae-Woong
李 喆 永 **
Lee, Chul-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riginal plans of the Railway official residence and process of the transfiguration of those plans based on the transition of social-culture, using 54 houses which were built from 1920 to 1945 in Taegu-Kyoubuk province.

In addition,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means of research on the form and pattern, and visual anthropological method by photograph and direct observ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original plans of Railway official residences were composed of the entrance hall, TADAMI Rooms, bathroom, toilet and HUSMA(wooden sliding doors).

2) After 1945, the room, kitchen, toilet of Japanese style had been trasfiguerated to Korean traditional style.

3) Since 1980's, those of Korean traditional style has been trasfiguerated to the livingroom, dinningroom, entrance hall and etc. of western style.

1. 序 論

歷史的 事實들은 單 一回的이고 동시에 相

* 정회원, 대구효성가톨릭대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울산전문대 실내디자인과 전임강사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互聯關性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전개된다. 歷史研究는 과거에 되어 온 것을 파악하여 앞으로 되어갈 것에 대해 답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가 어떻게 과거에서 발전해 왔는가를 관찰하고, 이 과정을 미래로 投射하여 추측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 유용하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다양하고 복잡한 住居類型은 近代를 바탕으로 전개되며, 근대는 그 이전의 住居文化를 규명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住居를 정확히 파악하고 未來住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開港(1876)이후 外勢에 의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外來樣式의 住居 즉 近代住居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이 시기에 流入된 外來 住居文化는 住居建築의 近代化와 함께 韓國 住居文化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음은 물론 현재에도 傳統住居文化와의 충돌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住居觀을 형성시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近代住居는 그것이 自生的인 受容態勢를 갖추지 못한 시기에 流入되었거나 日帝下의 他律的인 移植이었다는 점에서 住居史的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파괴되고 關聯資料는 散失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제시대에 건립된 근대주거에 대한 연구는 전통주택과의 맥을 이어주기 위한 의미 이외에도 그것이 한국 주거문화 발전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주거에 대한 연구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近代期 주거에 대한 연구가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공간적, 형태적 특성 분석이나 현상적 변용만을 다루고 있어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공간변용을 규명하는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제시대 대구지역에 건립된 철도관사를 현장 정밀조사하여 당시 住居團地의 배치형식과 官舍의 원형을 復元하고,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공간 변용과정을 고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鐵道官舍地의 配置形式은 어떠하였는가?
- 2) 鐵道官舍의 原形은 어떠하였는가?
- 3) 社會·文化的 變化에 따른 空間變容은 어떠하였는가?

2. 理論的 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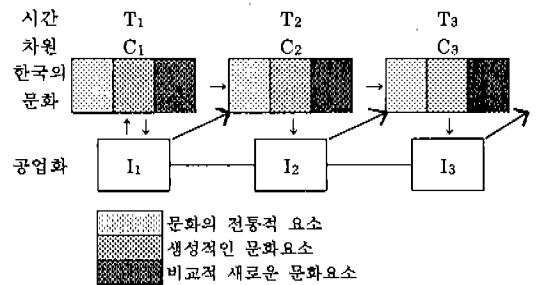
2.1 社會·文化的 變化와 住居

住居는 한 사회집단의 文化的 產物이며, 그것이 속해 있는 社會·文化的 環境에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되어 간다.

社會·文化的 要素¹⁾가 住居形態를 결정하는 1차적 요소임이 Amos Rapoport(1969), Cherner(1980) 등에 의해 밝혀진 바 있고, 최근 國內에서는 傳統을 근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변동의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새로운 연구들²⁾을 볼 수 있다.

사회변화에 따른 문화적 변동이 時間(歷史), 사회구조 및 환경 등의 상호관계에 의해 일어난다는 견해³⁾에서 볼 때 傳統은 持續性과 斷絶性을 가지며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適應的 修正이 변화된 가치관에 의해 구분되어 질 수 있는 一連의 시간적 한정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변화는 歷史 속에서 <그림 1>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림 1> 문화의 전통적 요소의 변동유형

註1) Amos Rapoport는 그의 저서 House Form and Culture에서 사회문화적 요소를 기본욕구(needs), 가족(family), 주부의 위치(position of woman), 프라이버시 규칙(privacy regulation), 그리고 사회적 교란(social intercourse) 등을 들고 있다.

註2) 임창복의 「한국도시 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서울대, 공학박사학위논문, 1988) 등.

註3) 김일철, 한국사회와 재구조화과정, 서울대출판부, 1989, p. 25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든 존재하고 生成되는 문화에는 전통적요소, 생성중인요소, 새로 이입되는 문화요소의 세가지 기본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이 곧 文化現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동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 근대 이후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유입양상은 他律에 의한 文化借用現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주거문화는 조선 말까지만 해도 전통사회의 정체성으로 인해 큰 변화없이 전개되어 왔으나 19C말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여 근대적 생활양식에 대한 전통적 생활양식의 대응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근대적 사회구조가 선행되어 선진사회의 생활 및 주거양식을 수용하는 외래문화借用現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체적인 文化借用樣相은 1960년대 산업화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는 도시화와 인구집중, 서구세계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가치관 및 의식구조의 변화, 문화적 이중구조라는 과도기적 현상을 수반하게 되었고, '70년대에는 문화의 규격화, 획일화 등의 문화적 역기능 현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의 두드러진 상황은 생활방식의 합리화, 편리성 추구 및 주택규모의 대형화, 리빙룸 채택, 설비의 발달 및 자재의 고급화 등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국민생활이 안정되고, 의식이 성숙되면서 문화적 주체성 회복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2.2 철도 관사의 건립 배경

우리나라에 철도가 부설된것은 1900년에 개통된 京仁線을 嚆矢로 뒤이어 京釜, 京義線이 부설되었다. 당시 京仁間은 경인철도 주식회사, 京釜間은 京釜 鐵道株式會社, 京城, 신의주 및 삼랑진, 馬山間은 臨時軍用鐵道監部에 의해 부설되었다. 그후 경부철도 주식회사는 경인철도 주식회사를 매수하였다가 1907년 臨時軍用鐵道監部와 함께 統監府 鐵道管理局 소

관으로 되었고, 합방후에는 朝鮮總督府 소관에 이어 社鐵에 위임 경영되어 오다가 1926년 4월부터 朝鮮總督府 직영이 되었다.

철도관사는 철도 노선부설공사의 과정에서 철도업무와 거주상의 능률화외에 韓人과의 격리 거주를 통해 그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植民地政策의 一環으로 실시되었다.

경인, 경부선 철도의 부설과 더불어 건립되기 시작한 철도관사는 주요 사무소 소재지에는 집단관사로, 中間驛에는 대개 驛舍에 연속하여 시설되었다. 철도관사의 특징 중 하나는 等級制로, 統監府 鐵道管理局에서 관사의 等級을 3等부터 8等으로 설정한 基準設計案을 마련하여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철도관사는 철도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영향 등으로 同一 等級의 관사에서도 평면이나 설비의 차이를 볼 수 있지만 等級 명칭을 그대로 하여 경부, 경인선에 시설된 것을 표준으로 설계안을 작성하여 보급하였다.

관사 종류는 局長官舍를 제외한 3等부터 8等까지 6種이었으며, 이들 명칭은 建築工事上의 필요에 의한 분류였다. 등급별 관사 수는 6等, 7等, 8等官舍가 가장 많았다. 철도관사의 종별내역을 거주자 상황별로 보면 <표 1>과 같다.

등급별 전체 관사가 시설된 곳은 서울 龍山과 平壤이었으며, 기타 各驛에는 필요한 등급의 관사가 順次로 시설되었다.

<표 1> 관사 종류별 거주 상황

구분	3등관사		4등		5등		6등관사		7등관사		8등
	간	울	관사	관사	간	울	간	울	관사	관사	
평수	79.0	57.0	45.0	34.0	25.0	21.0	20.0	16.0			11.5
거주상황	勅任	秦任	秦任	秦任	判任		判任 및 雇員		雇員 및 雇人		

관사의 구조는 木造 單層으로, 지붕에는 시멘트기와 또는 아연철판이나 석면슬레이트이었으며, 바닥에는 다다미를 깐 것이 대부분이었다. 寒冷地方에는 防寒을 위하여 외벽을 雜石粘土로 쌓은 두꺼운 중국식 벽으로 만들고, 창문은 유리 및 종이障子の 이중창으로 하였으며, 난방시설은 온돌 혹은 房爐를 설치

하였다. 이 중국식 벽은 雨雪, 凍害 등의 被害가 있고, 또 그 때문에 붕괴되었으므로 점차로 비늘板壁으로 바꾸었다가 그 후 다시 防濕 및 防寒, 防火를 고려하여 철망을 입힌 시멘트 몰탈칠로 改修하였다.

3. 研究方法

본 연구는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철도 공무원을 위해 건립하였던 철도관사를 대상으로 관사의 배치형식, 공간구성 및 시대별 변용양상 등을 현장조사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조사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관사의 건립배경과 소재파악을 위한 것으로 철도관사와 관련된 각종 資料 및 문헌 탐문, 舊 登記簿謄本 閱覽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부산·대전·영주 철도국 영선과에 보관되어 있던 당시의 철도관사 표준설계도를 입수하여 단지구성 및 단위공간의 원형 복원 자료로 활용하였다.

현장조사는 문헌조사를 통해 소재가 파악된 경주, 상주, 안동 等地를 중심으로 1996.1월~10월에 걸쳐 3차례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에서는 관사의 현존상황 및 거주자의 일반사항 등을 파악하였고, 2차 본조사에서는 각 건물의 배치 및 평면도 작성과 사진촬영, 거주자와의 면담 등을 행하였다. 이러한 1·2차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배치특성 및 정확한 原形平面의 追跡 復元, 변용과정 등을 분석하였으며, 3차 조사에서는 1·2차 조사시의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였다.

조사된 지역별 관사수는 경주 24戶, 안동 15戶, 상주 4戶, 왜관 3戶, 지천 2戶, 의성 우보리 4戶, 의성 탐리 2戶 등 총 54戶이며 等級別 관사 수는 5等 - 1戶, 6等 - 2戶, 7等甲 - 27戶, 7等乙 - 13戶, 8等 - 11戶이다. 이중 상주·의성·왜관·지천지역 관사의 경우 현재 거주자가 없는 空家가 많고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건립된 관사 수가 적어 공간변용에 대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2> 조사대상 관사의 지역별 분포

지역	관사수	등급별 관사 수					비고
		5等	6等	7等甲	7等乙	8等	
경주	24호	·	1	15	7	1	集團官舍地
안동	15호	1	1	6	3	4	集團官舍地
상주	4호	·	·	2	1	1	集團官舍地
왜관	3호	·	·	2	1	·	
지천	2호	·	·	·	·	2	
우보	4호	·	·	1	1	2	
탐리	2호	·	·	1	·	1	
합계	54호	1	2	27	13	11	

4. 結果의 考察

4.1 철도관사의 배치형식

조사대상 지역 중 경주, 안동, 상주는 일제시대 철도 분기점으로서 대규모 관사가 건립되었으나 그 외의 각 驛은 中間驛 성격을 지녀 2~3棟 규모로 건립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鐵道官舍地의 團地構成은 方形의 평평한 대지에 격자형의 가로망을 구획하여 독립형과 2호 연립형의 관사를 정연하게 배치하였다. 도로 체계는 주거단지의 지적도<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10m 넓이의 주 도로를 동서나 남북방향으로 놓고, 단위주거의 四面에 6m의 접근로를 網狀으로 연결하여 높은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같은 가로망은 1941년 朝鮮住宅營團에 의해 건립된 서울 文來洞 舊 營團住宅地나 1937년 부산 연산동에 지어진 集團 鐵道官舍地에서도 볼 수 있다.

鐵道官舍地의 입지는 경주의 경우 驛舍에 인접하여 조성된 반면, 안동은 역에서 약 3Km 가량 떨어진 평화동 일대에 자리잡고 있다. 안동지역의 鐵道官舍地가 驛과 분리되어 조성된 이유는 일제시대 당시 안동은 지방철도국 소재지로서 철도 종사자가 많아 대규모 관사의 건립이 요구되었으나 역 주변에는 이를 수용할 만한 적절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鐵道官舍地의 조성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당시의 기록이 없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

으나, 현지 거주민의 증언⁴⁾에 의하면, 경주 철도관사는 1930년대 중반부터 건립에 착수 하였으며, 해방 전까지 건립된 관사수는 80여 호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주택 재료나 구조에 있어서도 건립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먼저 건립된 북측 구역 관사의 경우, 외벽은 일본에서 들여온 杉木을 사용, 板壁으로 하고 지붕은 합석이나 슬레이트로 이었다. 조금 뒤에 건축된 남측 구역 관사는 防寒 및 防火를 고려하여 외벽을 몰탈뿔칠로 마감하고, 지붕은 현지에서 제조한 日式 시멘트기와를 얹었다고 증언하였는데 현장조사 결과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동 철도관사는 경주보다 이른 1920년대 말부터 건립이 시작되었으며, 건립된 관사의 수는 200여 호나 되었다고 한다.

團地內의 등급별 관사배치는 경주의 경우 團地·중앙의 東西道路를 중심으로 등급별로 구성하였다. 즉 북서측 구역에는 8等 관사를, 북동측 구역에는 6等 관사와 7等 관사를 각각 배치하였으며, 남측 구역에는 7等甲 및 7等乙 관사를 2戶 聯立으로 배치하였다. 안동은 북측구역에는 8等 관사를, 남측구역에는 7等 이상의 관사를 각각 배치하였다.



<그림 2> 鐵道官舎地의 단지구성- 慶州

團地內 모든 단위주택은 북쪽에 현관을 두고 남측에 前庭을 갖는 正南向의 배치형식을

註4) 경주지역의 철도관사에 대한 내용은 경주철도역 산하 건축 분소장을 지냈으며, 현재 경주시 배드민턴 지회장으로 있는 李貞雨(76세)씨와의 증언에 의한 것이며, 안동지역은 1935년부터 안동 철도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영주역장을 끝으로 퇴임한 권인모(83세)씨와의 면담에 의한 것임.

취하고 있으며, 담장 대신 철조망과 측백나무로 대지경계를 표시하였다고 한다.



<사진 1> 鐵道官舎地의 변화양상 - 安東

조사대상 철도관사지는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의 도로망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으나 60년대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주 도로변의 관사들이 대부분 헐리고 2~3층 규모의 현대식 상가 건물이 신축되는가 하면, 단위주택의 외곽에는 담장을 설치하거나 부속사 등을 증축하여 앞마당을 위요함으로써 團地內의 폐쇄감이 상대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현존하는 관사수는 경주에 비해 안동지역이 훨씬 적은데 이것은 6.25때 폭격으로 인해 많은 관사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4.2 철도관사의 등급별 공간구성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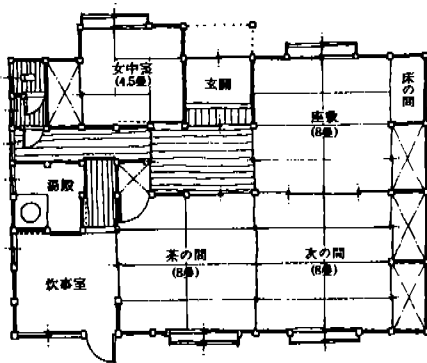
조사대상지에 건립되었던 철도관사의 원형 평면의 유형은 거주민과의 면담 및 실측조사 결과 지방철도국 소재지였던 안동에서는 4等·5等·6等·7等甲·7等乙·8等官舎의 6종류가, 경주에서는 6等·7等甲·7等乙·8等官舎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당시 總督府 鐵道局에서 等級別 표준설계도를 작성, 이것을 근거로 各驛의 요구조건에 맞게 필요 관사를 선택적으로 지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조사된 等級別 관사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中複道型⁵⁾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공간구성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註5) 중앙의 복도를 사이에 두고 各室들이 남북으로 配列되는 점집형으로 일본에서는 明治 41年(1908)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中流階層의 주거로 채용되었다.

1) 5等 官舎

5等 관사는 북측 중앙에 玄關을 두고 그 우측으로 다다미 8疊을 칸 接客空間인 자시키(座敷)와 자시키의 보조공간인 쓰기노마(次の間), 가족생활 공간인 차노마(茶の間)를 連接配置한 쓰즈끼마(續き間)型⁶⁾으로 구성하였다. 자시키의 내부에는 도코노마(床の間)와 찌가이다나(違棚), 나게시(長押) 등을 설치하여 격식을 갖추었으며, 쓰기노마에는 일종의



<그림 3> 5等 官舎의 平面圖

불박이 벽장인 d오시이레(挿入れ)를 2칸 설치하였고, 兩 室間은4작 미서기문인 후스마(ふすま)로 처리하여 공간의 전용성과 개방성을 높였다.

玄關 우측으로는 4.5疊 크기의 하녀방(女中室)과 변소를 두고 그 앞쪽에 욕실과 부엌을 배치하였다. 욕실에는 가마솥 모양의 철제 욕조를 시설하였으며, 부엌 前面에는 여닫이문을 달아 前庭과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等 관사의 거주대상은 驛 組織上⁷⁾ 지방철도국의 각 과장(書記官級)이나 驛長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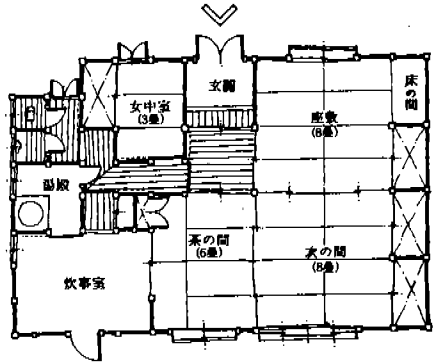
註6) 자시키와 쓰기노마(次の間), 차노마 등의 室들이 후스마로 연결되어 있는 형으로 자시키에서 결혼식, 장례식, 정월행사와 같은 의식이 행해질 때 두 공간 사이의 문을 열어 내고 통합하여 사용함.

註7) 당시 안동과 같은 지방 철도국의 조직은 局長(理事官)―各課長(書記官)―係長(事務官)―主任(主事)―係員의 종적인 구성이었고, 管轄驛은 규모에 따라 驛長과 各所長(機關車事務所, 保線事務所, 客·貨車事務所, 建築事務所, 電氣事務所)아래 助役과 係員이 조직되어 있었음.

2) 6等 官舎

철도국의 계장 또는 중규모 驛의 驛長(事務官級)이나 각 所長에게 배당된 6等 관사는 5等 관사에 비해 하녀실(女中室)이 조금 적으나 공간 구성면에서는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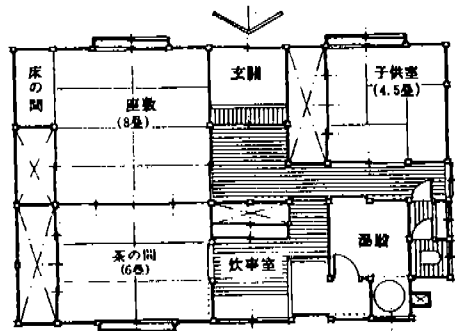
그러나 4·5等 관사가 독립관사로 배치된 데 반해 6等 이하의 관사는 2戶 聯立으로 배치되는 차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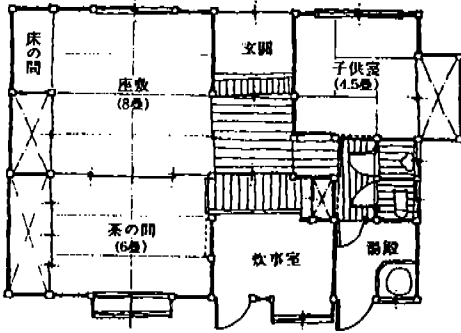
<그림 4> 6等 官舎의 平面圖

3) 7等甲 官舎

7等 관사는 甲, 乙 두 형이 있는데 같은 7等 甲 관사라도 평면구성은 경주와 안동의 것이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다다미 8疊+ 6疊+4.5疊으로 되어 있는 7等甲 관사의 규모 제한 원칙은 지키되 각 거주 세대의 기호와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 구성면에서는 융통성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7等甲 官舎의 平面圖 - 慶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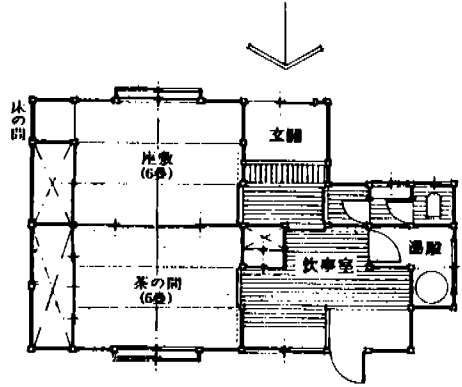
<그림 6> 7等甲 官舎의 平面圖 - 安東

4) 7等乙 官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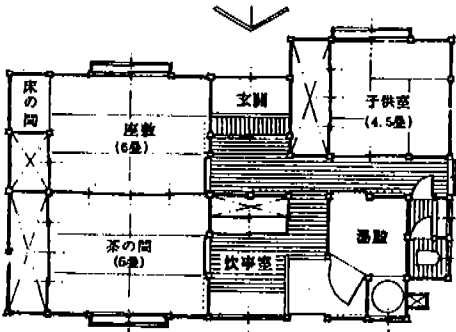
7等乙 官舎는 평면구성상 7等甲 官舎와 별 차이가 없고 다만 자시키공간이 2畳 더 작을 뿐이다. 실 구성에 있어서도 7等甲 官舎처럼 경주와 안동의 것이 다르다. 특히 안동의 것은 내부에 욕실이 없는데, 이는 下級官舎의 경우 단지내에 있는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7等乙 官舎는 主任이나 助役들에게 배당되었다.

5) 8等 官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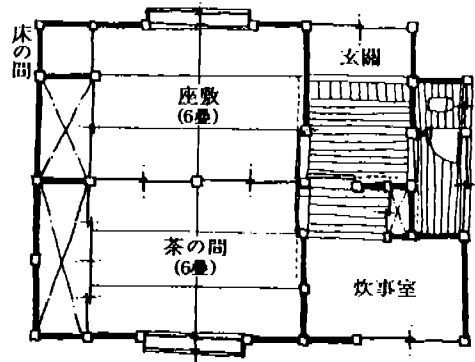
6種의 官舎 중 가장 규모가 작은 8等 官舎는 일반 係員들에게 공급되었는데, 7等乙 官舎와 비교해 볼 때 평면구성에 있어 차이는 현관 좌측에 있던 4.5畳규모의 下女室이 없어지고 중복도 위치에 변소를 배치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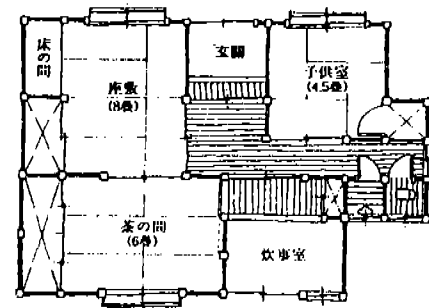
<그림 9> 8等 官舎의 平面圖 - 慶州



<그림 7> 7等乙 官舎의 平面圖 - 慶州



<그림 10> 8等 官舎의 平面圖 - 안동



<그림 8> 7等乙 官舎의 平面圖 - 安東

지금까지 서술한 각 等級別 官舎의 공간구성 및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이상에서 나타난 철도관사의 공간구성상의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평면구성이 중복도형의 겹집형태를 띄며 각 실들이 벽체로 고정되지 않고 후스마(ふすま)로 처리되어 실의 轉用性이 강하다.

둘째, 북측에 현관을 설치하여 출입하고 있으며 욕실, 변소 등이 內室化되어 있다. 셋째, 가구대신 불박이장인 오시이레(挿入れ)를 두어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바닥구조가 온돌 대신 다다미로 되어 있는 점 등이다.

<표 3> 等級別 공간구성 및 특성

구분 등급	형태 분류	방 크기 · 개수 및 실 구성							거주지
		8畳방	6畳방	4.5畳방	3畳방	부엌	변소	욕실	
5등	단독	3	-	1	-	1	1	1	각 과장 역장(서기관급)
6등	2호 연립	2	1	-	1	1	1	1	계장 역장(사무관급) 과 소장(技正급)
7등	甲 2호 연립	1	1	1	-	1	1	1	주임 소역장(주사급) 과 소장(技佐급)
	乙 2호 연립	-	2	1	-	1	1	1*	주임, 조역
8등	2호 연립	-	2	-	-	1	1	1*	계원

1* : 욕실이 없는 경우도 있음

또한 실내로의 진입 방식이 현관-중복도-자시기로 이루어져 전통주거에서 나타나는 대문-마당-마루-방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의 전통주거나 생활양식과는 상충되고 있어 해방이후 거주자의 변화에 따른 공간변용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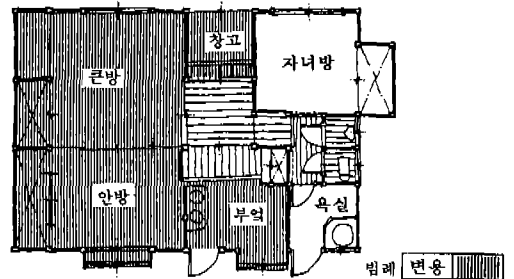
4.3 内部 空間構成의 變容

1) 空間構成의 變容 類形別 時代的 樣相

일제시대 일본인 철도종사원들의 생활양식에 맞게 지어졌던 철도관사는 해방 후 거주자가 한국인으로 바뀌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시대별로 다양한 변용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거에 대한 공간 변용양상을 시대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간 진행되어 온 변화과정이 거주자의 가족구성·경제력·주거의식 등의 차이에 따라 변용의 속도, 내용 등이 복잡, 다양한 양상을 띄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 면담과 물리적 변형에 관한 흔적조사, 사회·문화적 변화상황 등을 토대로 조사대상 주거공간의 변용 유형별, 시대별 변용양상을 파악코자 하였다.

(1) A형

이 유형은 노인이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많으며, 증·개축이나 내부공간구성의 변경과 같은 물리적인 변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外形的으로는 건립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다. 다만 한국인의 생활이 일본인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몇가지 개조현상이 나타난다. 가장 먼저 진행된 변화는 기존의 다다미방을 우리의 주생활에 맞게 온돌방으로 개수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부엌에 깔려 있던 마루의 일부를 뜯어 내고 연탄아궁이를 시설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의 일식부엌은 방바닥보다 50~60cm 정도 낮추어진 재래식 부엌으로 개조되었다. 또한 북측 현관은 남측 부엌을 통한 출입이 선호됨에 따라 주출입구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방·부엌·창고 등으로 변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각 실의 기능은 남향하고 있어 채광이 좋은 차노마(茶の間)는 안방으로 사용하고 기타 실은 자녀실이나 부속실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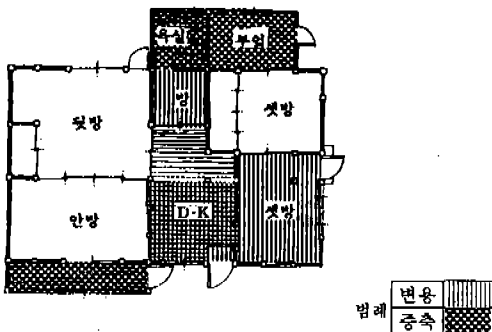
<그림 11> A형 예 - 안동 안현근씨대(7等甲)

거주실의 수적 증가나 증축은 거의 없었으며, 다만 기능이 상실된 도꼬노마(床の間)나 오시이레(挿入れ)를 철거하여 거주실의 면적을 넓게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거주실들의 사이가 후스마(ふすま)로 구획되어 실의 독립성이 부족하였으므로 후스마에 벽지를 바르거나 가구를 배치하여 개실화하는 경향도 있었으나 연결한 북쪽방의 채광이나 통풍문제로 후스마(ふすま)를 그대로 두기도 하였다.

따라서 A형은 주로 해방 후부터 '60년대 사이에 개조가 이루어져 현재까지 존속되는 유형으로 기존의 日式 철도관사에 생활양식이 다른 한국인이 거주하게 됨에 따라 이질적인 공간구조를 재래양식으로 환원하는 전동지향적 변용특성을 보인다.

(2) B형

B형은 가족생활주기가 축소기이고 경제력이 비교적 낮은 가구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며, 증·개축과 같은 공간의 양적팽창과 더불어 설비면에서 활발한 개선이 이루어진 유형이다. 이것은 '70년대 경제적인 성장에 의해 주거공간에 대한 거주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주거와 관련된 설비기술의 발달 등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따른 영향이라 생각된다. 즉 연탄보일러가 널리 보급되고 싱크대가 보편화됨에 따라 부엌은 입식화나 DK화의 경향을 나타낸다. 수도의 보급율이 높아지고 洋式 변기가 보급되면서 변소는 수세식화하였다. 또한 70년대 이후 주택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대부분의 가구주들은 向이 좋지 않은 북쪽 室들을 임대하여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 주거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세입자들을 위해 부족한 부엌공간과 화장실 등을 본체나 여유대지에 증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다른 용도로 기능이 轉用되었던 현관이 방이나 세입자들의 출입공간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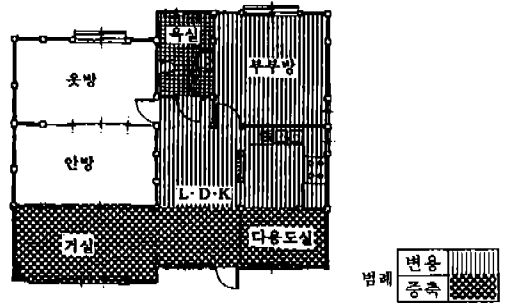


<그림 12> B형 예 - 경주 김순자씨 택(7等甲)

또한 남쪽 前面을 증축하여 실내 공간을 확장하거나 현관을 신설하는 예도 많았다.

(3) C형

이 형은 가족생활주기가 성장기이고 세대의 학력, 경제력이 비교적 높은 가구에 많은 유형이다. 여러차례의 증축과 개축을 거치면서 평면구성이 가장 현대적으로 변용된 형이다. 평면구성상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남쪽 부엌과 욕실을 통합 또는 증축하여 입식의 거실로 꾸미거나 부엌에 인접한 室을 식당으로



<그림 13> C형 예 - 경주 김창규씨 택(7等乙)

개조하여 D.K 또는 L-DK화 하는 등 서구적인 거실중심형 평면으로 바뀐 점이다.

이것은 80년대 들어 입식 생활양식이 정착되고, 거주자들이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집중형 평면을 선호하게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또한 주택난의 심화와 택지 이용의 효율화에 따라 아파트가 도시의 보편적 주거유형으로 자리잡게 되는 사회적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주와 안동지역의 공간 변용유형을 살펴보면 안동에 비해 경주가, A형 보다 B·C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훨씬 더 발전적인 변용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4> 지역별 변용유형

N=39

지역 \ 유형	A	B	C	소계
경주	4	10	10	24
안동	9	5	1	15
계	13	15	11	39

이러한 결과는 거주자의 연령, 경제적 여건, 주거의식 등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며, 특히 경주지역의 경우 철도관사의 입지가 도심

지에 위치한 驛에 인접해 있어 驛勢圈의 영향과 함께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2) 단위공간의 변천

(1) 출입공간

① 현관

현관은 한국 전통주택에는 없었던 이질적인 공간요소로, 외부에서 내부공간으로 진입할 때 매개공간의 역할을 한다. 건립 당시 모든 官舍에는 북측에 현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해방 후 현관은 거주인이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바뀔 때 따라 출입방식의 차이로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대부분 방이나 부엌, 창고 등으로 변용되었다. 70년대 이후에는 조사대상 주택들이 다세대화되면서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출입구의 분리 요구가 생겨나 기존 현관은 대부분 세입자들의 출입공간으로 변용되게 되었다.

현관이 변용된 현상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39호 중 29호에서는 방이나 부엌, 창고 등의 용도로 바뀌었고 나머지 10호에서는 현재까지 주출입구나 부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다. 현관이 없어진 29호의 경우는 室 前面에 있는 부엌문이나 별도의 남측 현관을 신설하여 내부로 출입하고 있다.

<표 5> 현관의 변용현황

N=39

지역	변용					유지		소계
	방	부엌	창고	욕실	통로	주출입	부출입	
경주	12	2	3	3	2	-	2	24
안동	3	2	2	-	-	5	3	15
계	15	4	5	3	2	5	5	39

현관이 유지되고 있는 10호 중 5호에서는 부출입구로 이용되고 있어 출입구로서의 기능이 이전보다 약화되었다. 현재에도 현관이 주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은 모두 5호로 전부 안동지역의 관사에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북쪽 출입 기피현상은 전통적인 진입방식을 유지하려는 거주자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② 복도

철도관사의 평면은 중북도형으로 室 內로의 출입은 대문-현관-복도의 동선체계를 지낸다.

각 실의 연결, 통로공간인 복도는 조사결과 변용유형 중 A형에서는 각 실 사이의 통행을 위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B·C형은 방이나 부엌의 확장에 의해 인접한 공간과 통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설비공간

① 부엌

부엌의 주된 변화는 취사 및 난방연료의 변화와 부엌설비의 발전에 따른 입식화 경향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부엌의 변화과정을 생활양식과 설비·공간적 측면에서 시대별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건립 당시 관사의 부엌은 거주실 바닥구조가 다다미로 처리되어 있어 한국 전통주택의 부엌과는 달리 취사기능만 하였다. 따라서 부엌바닥의 높이는 방이나 마루 등과 같은 높이를 유지하여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한국인이 거주하면서 일차적으로 거주실(방) 바닥을 대부분 온돌로 개조하였다. 그 결과 부엌은 난방과 취사를 겸하는 재래식 부엌으로 기능이 변하게 되었다. 즉, 온돌난방에 필요한 연탄아궁이를 시설하기 위해 부엌 바닥을 방바닥보다 50~60cm정도 낮추었다. 이러한 형태는 60년대까지 별다른 변화없이 지속되다가 70년대에 들어 새로운 난방시스템이 개발되고, 부엌설비가 개선되면서 부엌의 형태가 입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난방방식은 70년대 초반에는 개별연탄 온돌에서 개별연탄 온수보일러로, 70년대 후반에는 다시 집중식 연탄 온수보일러로 개선되면서 보일러가 부엌 바깥이나 별도의 보일러실에 설치되게 되어 난방과 취사가 분리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부엌바닥은 거주실과 같은 높이로 되었으며, 부엌의 위치 또한 변경이 자유로워졌다.

80년대에는 기름 온수보일러와 가스 및 전 라렌지와 같은 설비의 발달, 보급으로 난방과 취사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케 되면서 싱크대를 도입한 입식부엌이 가장 보편적인 부엌형태가 되었다.

<표 6> 부엌 변용현황

N=39

구분 지역	용도변경		위치유지		소계
	병	기설	계재식	입식	
경주	3	14	4	3	24
안동	2	3	5	5	15
계	5	17	9	8	39

그 결과 他 室과의 연결성이 높아져 인접한 실을 식당으로 개조하거나, 부엌 한 칸에 식탁을 놓아 식사공간으로 활용하는 DK식 부엌이 도입될 수 있었다. 부엌의 이러한 형태변화는 80년대의 전형적인 주거유형으로 등장한 아파트의 영향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② 변소 및 욕실

조사대상 주거의 변화내용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변소와 욕실이다. 이들 공간의 변화과정을 위치와 설비면에서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변소의 경우, 일본식 철도관사에서는 한국 전통주택과는 달리 대부분 내부에 배치되었으며 설비방식도 외부 계재식(수거식)이었다. 그러나 해방 후 內室化되어 있던 변소는 본채에서 떨어져 나와, 주로 도로에 면한 대문간에 욕실이나 연탄창고 등과 함께 別棟으로 시설되었다.

이는 기존의 일본식 주택의 변소가 내실화되어 출입에 편리하기는 하지만 수거식인 관계로 악취 및 기생충의 번식을 막는데 한계가 있고, 본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대문간에 변소를 위치시키던 전통적인 주거관 때문으로 생각된다.

변소에 대한 이러한 현상은 60년대까지 이어졌으나 70년대 이후 수세식 변기가 보급되면서부터 內部化되는 경향을 보인다. 70년대 후반에는 수세식 변기의 수용이 일반화됨에 따

<표 7> 변소 변용현황

N=39

구분 지역	유지	용도통합	본동중축	별동	소계
경주	5	18	1	·	24
안동	5	6	1	3	15
합계	10	24	2	3	39

라 변기와 욕조가 통합된 유형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위생설비의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하나의 공간에 변기·욕조·세면기까지 갖춘 형태가 보편화되었다.

또한 일본식 철도관사에는 건립 당시 내부에 별도의 욕실이 시설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해방 후 60년대까지는 욕실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과 생활상의 요구가 높지 않아 방이나 부엌으로 변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8> 욕실의 변용현황

N=32(39)

구분 지역	용도변경				유지				소계
	방	부엌	창고	현관	기설	욕실	욕실+세탁실	욕실+세탁실+변소	
경주	13	3	·	·	1	1	5	1	24
안동	·	2	1	1	·	1	2	1	8(7)
계	13	5	1	1	1	2	7	2	32(39)

*안동에 욕실이 없는 유형이 7호 있음.

70년대 이후 위생설비가 발달하고 욕실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창고 용도의 칸을 개조하여 욕실로 만들거나 마당의 일부에 시멘트 벽돌조로 세면장 및 욕실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 후 욕실이 변소나 세면실의 기능과 통합되면서 주택의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3) 거주공간의 변용

일본식 철도관사의 거주공간은 家長의 접객 및 의식 수행공간인 자시키(座敷), 자시키

의 보조공간인 쓰기노마(次の間), 가족의 생활공간인 차노마(茶の間), 하인의 거처실인 하녀방(女中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해방 후 이들 거주공간은 생활양식이 다른 한국인이 거주하게됨에 따라 우선 室面積이 크고, 向이 좋은 쓰기노마(次の間)나 차노마(茶の間)는 안방으로, 기타 실들은 자녀방 등으로 변용되었다. 거주공간의 증축은 거의 없었지만 기능이 상실된 자시키(座敷)의 도꼬노마(床の間)나 각 실의 오시이레(押入れ)를 철폐하여 실면적을 확장하였고, 후스마(ふすま)에 벽지를 바르거나 가구를 배치하여 개실화하는 전통지향적인 변용양상을 나타내었다.

80년대 이후는 거주자들에게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공간구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입식 생활양식이 정착되면서 부엌에 인접한 거주공간들이 거실, 식당 등으로 변용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5. 結 論

日帝時代に 일본인 철도공무원들을 위한 집단주거지로 건설되었던 안동, 경주, 상주等地에 남아있는 철도관사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얻었다.

1) 철도관사지의 단지구성은 方形의 평평한 대지에 격자형의 가로망을 구획하여 독립형, 2호 연립형의 관사를 정연하게 배치하였다.

가로망은 8~10m 넓이의 주 도로를 동서나 남북방향으로 놓고 단위주거 四面에 6m의 접근로를 網狀으로 연결하여 높은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철도관사지의 입지는 경주의 경우 驛舍에 인접하여 조성된 반면, 안동은 驛에서 약 3Km가량 떨어진 평화동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제시대 안동은 지방철도국 소재지로서 철도 종사자가 많아 대규모 관사의 건립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지 전체를 몇 개 구역으로 나뉘 등

급별로 관사를 배치하였다. 현재에도 당시에 이루어진 가로망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으나 도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 도로변의 관사들을 시작으로 철거되고 2~3층 규모의 현대식 상가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2) 조사 대상지역에 건립되었던 관사의 평면유형은 4等, 5等, 6等, 7等甲, 7等乙, 8等 관사의 6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당시 총독부 철도국이 관사 건립계획을 수립, 표준설계도를 작성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各驛의 요구조건에 알맞은 관사를 선택적으로 건축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各等 관사의 기본 평면은 中複道型을 채택 하여 玄關, 부엌, 便所, 浴室, 居住室 등으로 구성하였다. 관사규모는 등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는 철도공무원들의 직급이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배분하기 위한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3) 내부공간의 변화과정

(1) 해방후 부터 60년대까지는 일본식 주택인 철도관사의 공간구조가 재래양식으로 환원되는 전통지향적인 변용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의 최우선적 변화는 기존의 다다미방을 온돌방으로 개수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日式부엌이 재래식부엌으로 개조되었다. 평면구성은 차노마(茶の間)의 안방화, 변소의 외부화, 거주실의 확장 및 개실화, 현관의 변용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시키(座敷)형 평면이 한국전통의 안방중심형 평면으로 재편성되었다.

(2) 70년대의 공간구성은 근대화에 따른 설비, 재료의 발달과 보편화로 부엌의 입식화, 변소의 내부화가 이루어지고, 도시의 주택난 심화로 다가구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현관은 다시 세입자들을 위한 출입공간으로 변화되었다.

(3) 80년대 이후에는 도시의 일반적인 주거 유형으로 아파트가 널리 보급되면서 기능적인 아파트 평면의 영향을 받아 철도관사는 각 실들이 통합되어 거실, DK, L-DK공간 등

을 구성하는 거실중심형 평면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4) 단위공간의 변화과정

(1) 출입공간 ; 현관은 방·부엌·창고 등으로 변용되었다가 다가구화 경향과 더불어 세입자들을 위한 출입공간으로 다시 사용되고 있다. 복도는 방이나 부엌의 확장에 의해 인접한 공간과 통합되는 경우가 많았다.

(2) 설비공간 ; 부엌은 日式→재래식→입식→DK, L-DK식으로, 변소는 내부→외부→욕실과 통합, 내부에 설치되는 변화과정을 거쳤으며, 욕실은 방, 부엌 등으로 변용되어 없어지거나, 외부에 설치되었다가 변소와 통합되어 다시 내부로 들어오는 변화를 보였다.

(3) 거주공간 ; 한국의 전통지향적 공간→북쪽에 면한 실의 입대공간화→거실, 식당(DK형)등 서구적 공간요소의 채용 등으로 다양하게 변용되었다.

參 考 文 獻

1. 大韓住宅公社, 住公20年史, 1979.
2. 西山宛三, 日本のすまい, 勁草書房, 1976.
3. 鈴木成文, 日本と韓國の住居の近代化過程の比較考察 - 住様式の持續と變容, 住宅建築研究所, 1987.
4. 鈴木成文, 住まいの計劃 住まいの文化, 彰國社, 1988.
5. 朝鮮と建築, 第6輯 5號, 朝鮮建築學會編, 1927. 9.
6. 鐵道廳, 寫眞으로 본 鐵道 75年史, 1974.
7. 鐵道廳, 韓國鐵道80年 略史(年表, 寫眞), 1979. 9.
8. 鐵道廳, 韓國鐵道史 第2卷, 1977.12.
9. 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40年 略史(上), 景仁文化社, 1985.
10. 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史, 景仁文化社, 1985.
11. 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史論纂, 景仁文化社, 1985.
12. 金宜宰, 한국 근대 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7.
13. 김일철, 한국사회와 재구조화과정, 서울대출판부, 1989.
14. 박강철, 사회문화변동에 따른 주거규모의 추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1991.
15. 박경옥, 일제시대 일식주택의 변용을 통해 본 주양식의 한일 비교연구, 한국주거학회지 4권 1호, 1993.6.
16. 西 和夫·穂積和夫(이무희·진경돈 譯), 日本建築史, 世進社, 1995.
17. 馬銅宙, 일제시대 연립형 관사의 공간변형에 관한 현장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권 6호, 1991.12.
18. 尹在雄, 李喆永, 대구지역 일양절충식주거의 공간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5권 2호, 1994.
19. 李英鎬, 개화기 이후 한국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 부산시 목조주택의 변용양상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권 5호, 1988. 10.
20. 李喆永, 일식주거의 실내 공간변용에 관한 조사연구 - 밀양시를 중심으로, 밀양산업대학교 논문집 제1권, 1993.12.
21. 임희섭, 한국의 사회문화변동, 현암사, 1984.
22. 정 모, 증개축을 통해 본 일식주거의 공간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1.

